구충곤 vs 임호경…전현직 리턴매치

■화순군수

화순군수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구충곤 현 군수와 설욕을 벼르는 민주평화당 임호경 전 군수의 '리턴매치' 양상이다.

지역민들은 '깨끗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군수 선거 때마다 '잡음'으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구충곤 후보는 지난 14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사무소에서 도의원·군의원 후보 13명과 함께 공동 출마선언을 했다. 구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화순 사는 자부심'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고소·고발, 세력간 갈등을 끊겠다는 약속으로 읽힌다. 그는 화순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에만 무려 36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화순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이름(나이)	구충곤(59)	임호경(66)
주요경력	화순군수	전 화순군수
주요공략	·첨단의료 복합타운 조성 ·전국 최초 농민수당제 시행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 ·전 군민 대상 사회안전보험 가입 ·화순마더센터 설립	·화순시 승격 ·전남대병원 화순 유치 ·화순 관광도로 개설 ·경로당 취사도우미 지원 ·화순 문화난장 개장

선거 때마다 '잡음' … 지역민들 깨끗한 선거 요구

구후보 "첨단의료타운 조성" 임후보 "화순시 승격"

구 후보는 "첨단의료 복합타운을 조성해 화순을 세계적인 복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 미래성장산업인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유치 등을 통해 화순을 백신 글로벌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절벽·고령화·저출산 통합(복지·일자리·주거·양육)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맘(mom, 엄마) 편한 화순', '불편함이 없는 노후', '여성의 삶이 즐겁고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화순'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림책 놀이터 조성,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 교육놀이문화 공간 설립,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지원 거점센터인 '화순 마더센터'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로당 급식도우미 제도 전면 확대, 전국 최초 농민수당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구 군수에 맞서 평화당에서는 임호경 전 화순군수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18일 화순읍 미래타워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임 후보는 제1 공약으로 '화순시 승격'을 내걸었다. 그는 "2002년 화순군수 당선 이후 화순시 승격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어 왔다"면서 "이제 화순군민과 힘을 모은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 동안 전임 군수들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 화순시 승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며 "이 때문에 '임호경의 추진력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다수 군민의 요청에 따라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표명했다.

임 후보는 특히 "화순전남대병원과 녹십자 화순백신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살려 학동 전남대병원을 화순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3개 읍면 거점 관광지를 연결하는 화순관광도로 개설, 경로당 취사도우미 지원으로 300개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 급여 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 군청 직영 청년직업훈련 시행,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군청에 일정비율 취업, 향토장학금 300만원 지급, 저소득 청소년 책걸상·학원비 지원, 현대자동차로터리 직선도로 개설, 화순 문화난장 개장 등을 공약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민주당 對 무소속…현역 도의원 2명 모두 재선 도전

■전남도의원(화순)

화순 전남도의원 선거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 구도다. 현역 도의원 2명 모두 재선 도전에 나섰다.

제1선거구(화순·도곡·도암·이서·북면)에서는 민주당 문행주(53) 후보와 무소속 임지락(54) 예비후보가 격돌한다. 1선거구의 특징은 외지인이 많다는 점이다. 광주와 인접한 지형 탓에 광덕지구를 중심으로 화순읍은 광주의 베드타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화순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화순읍에 살고 있어 읍내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행주 후보는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화순군의회 재선 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전원도시, 생물의약산업의 열매로 군민의 희망을 살찌우고 꿈을 실현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임지락 예비후보는 재선 화순군의원 출신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잘 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제2선거구(한천·춘양·청풍·이양·능주·동복·남면·동면)에서는 민주당 구복규(63) 후보와 무소속 민병흥(58) 예비후보가 의원배지를 놓고 맞붙는다.

구 후보는 화순군 문화관광과장·한천면장·화순읍장을 거쳐 제9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화순군수에 도전했으나 이번엔 체급을 낮췄다.

민 예비후보는 세차례 전남도교육위원을 지낸 교육전문가다. 당초 화순군수 출마를 고려했다가 전남도의원으로 유턴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고 싶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화순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 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문행주(53·민·전 전남도의회 의원) 임지락(54·무·전 화순군의회 의원)
제2선거구	구복규(63·민·전 전남도의회 의원) 민병흥(58·무·전 전남도의회 의원)

민=더불어민주당, 무=무소속

무주공산…민주-평화-무소속 3파전

■구례군수

서기동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구례군수 선거는 3파전으로 가닥이 추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전직 공무원, 지방의원, 전직 군수로 대진표가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순호(55) 후보, 민주평화당 박인환(67) 후보, 무소속 전경태(70) 후보간 대결 구도다.

하지만 유권자 규모가 2만3000여명에 불과해 정당보다는 인맥과 혈연으로 묶인 조직력과 인물론이 선거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쥔 김순호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은 3선을 역임한 서 군수를 보좌하면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구례 산동·간전·마산면장 등을 두루 거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구례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순호(55)	박인환(67)	전경태(70)
주요경력	전 구례군수 비서실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	전 구례군수
주요공략	·지역발전 자문단 구성·운영 ·읍면별 표본 공영택지 조성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구례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 중심 행정 추진	·천년고찰 화엄사·천은사간 치유의 길 ·왕시루봉 순례길·섬진강 아카시아길 ·서시천 장미공원 길 ·10대 계곡 워터파크 ·곰센터·어류생태관 수학여행 코스로	·구례 경쟁력 높여 경제 살리기 ·투명행정·공개행정 ·건강장수 부부 선발대회 및 회혼례 ·지리산 미니어쳐 관광단지 설립 ·스마트팜 이용한 농가소득

유권자 적어 정당보다 인맥·혈연 선거 판도에 큰 변수

김순호 행정경험·박인환 추진력·전경태 조직력 강점

김 후보는 "지난 20년간 선거로 인한 갈등으로 군민들이 받은 피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구례를 미래농업 도시, 건강 도시, 살아있는 생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 화합을 위해 지역발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읍면별·계층별 지역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모임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인구 증가 대책으로 읍면별로 1개소당 15가구에서 20가구 이내의 공영택지를 조성해 외지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대도시와 연계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유치, 간전~광양간 터널 개설, 문척·간전·토지 등에 배후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리산에 국내 최장 짚라인 설치, 토·일 주말장 개설 운영, 구례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 흙길 재정비, 귀농·귀촌 상설 대화방 개설, 군수 직소민원실 운영 등을 공약했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평화당 박인환 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을 받아 표밭을 누비고 있다.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박 후보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오며 쌓은 인맥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례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구례군은 지난 27년간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였다"며 "이제는 지역의 안정과 화합이 최우선이다. 군민을 하나로 아우르는데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천년고찰 화엄사·천은사간 치유의길 조성, 왕시루봉 순례길·섬진강 아카시아길·서시천 장미공원길 조성 등 관광산업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 10대 계곡 워터파크 조성, 곰센터·섬진강어류생태관·수달생태관 등 수학여행 코스 유치 등 1000만 관광객 모시기 프로젝트로 부자 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소득과 복지 향상, 인재 육성, 인구 늘리기 등 공약도 내놨다.

초대 구례군의회 의장과 민선 2·3기 구례군수를 지낸 무소속 전경태 예비후보는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군정 운영 경험과 조직력 등을 바탕으로 민심을 공략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전 예비후보는 "편가르기와 줄서기로 일관된 낡은 정치행태를 끊고 깊게 파인 상처의 골을 메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백의종군하게 됐다"며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구례의 경제지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장수인구 비율이 높은 구례의 특성에 맞게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행복한 구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구례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를 살리고, 투명행정·공개행정 등을 약속했다. 또 건강장수 부부 선발대회 및 회혼례, 구례에 맞는 문화콘텐츠·식품·투어 등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 지원, 지리산 미니어처 관광단지와 친환경 헬스케어센터 설립,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가소득, 귀농·귀촌·다문화가정 지원 등도 내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jt@kwangju.co.kr

단일선거구…민주-평화-민중-무소속 4파전

■전남도의원(구례)

구례는 단일선거구다. 전남도의원 1명을 뽑는다. 민주당은 이현창(47) 후보를 경선없이 단수 추천했다. 평화당은 고택윤(60) 후보를, 민중당은 김봉용(51) 후보를 앞세웠다. 장주옥(63)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의원배지를 노린다.

40대 기수론을 내건 이 후보는 민주당 구례연락소장과 전남도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풍속영업 위반 등 3건의 범죄기록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원을 지낸 고 후보는 풍부한 선거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이다. 4회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뒤 5·6회 선거때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네번째 도전이다.

민중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농업인이다. 구례군농민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회적기업 ㈜지리산구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무소속 장 예비후보는 구례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 구례문화원 이사를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ljt@kwangju.co.kr

■구례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 름(나이·정당·경력)
구례군 선거구	이현창(47·민·전남도 자문위원) 고택윤(60·평·전 전남도의원) 김봉용(51·중·지리산구례공동체 대표) 장주옥(63·무·전 구례문화원 이사)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중=민중당, 무=무소속